

# 원활한 분과운영으로 전회원 불만요인 없애

취재 : 김 용 화 기자



▲손종현 지부장

3개 분과가 합심하여  
가족처럼 둘고 살아  
단결이 잘되고 있다.

**부**산·경남지부(지부장 손종현)는 국내 제2의 도시인 부산직할시에 위치하고 있는 본회지부로서 3개 분과(부화, 채란, 육계)가 가장 잘 융화를 이루고 있는 모범적인 지부라 할 수 있다.

이곳 부산·경남지부는 60년말 가금협회로 구성되었다가 해체되고 그후 70년대초에 접어들어 육계생산자들이 다시 육계조합을 구성, 운영하여 오던 중 채란업자들이 참여하면서 정식적으로 본회 부산·경남지부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지부로 운영을 해오고 있다.

## 3개 분과를 핵심으로

부화분과, 채란분과, 육계분과가 함께 이질감 없이 한 지부내에서 상존하고 있는 데에는 남다른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채란분과만 하더라도 박재류 위원장을 위시하여 20여개 지구

에 단지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회원은 1,000여명에 이를 정도이며, 육계분과는 이종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11개의 분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조직구성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손종현 지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회원가입율 90%에 이르러

“제가 지부장을 맡기 이전부터 부산·경남지부의 조직은 아주 크고 단결이 잘 되어왔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라서 항상 양계산물이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외지에서 늘 30% 정도는 반입이 됩니다. 가끔 이로 인해 가격문제로 다투게 되지만 경남 지역 양계인 90%가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 어떤 여건 속에서도 단결을 촉구하면 일시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란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곳 경남지부 회원 중에는 멀리 포항부터 이웃 경북지역인 경주에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1일 부산시의 계란소비를 대략 300만개로 파악하고 있으며, 육계는 도계품으로 주에 50만수가 된다.

이렇게 큰 지부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는 비법은 우선 3개분과의 합심이 있기 때문이고 지부 사무실을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하는데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기 때문에 불만이 커질 수가 없다.

#### 불만요인 사전 분석후 대화로 해결

육계분과위원회는 월 2회, 채란분과위원회는 주 2회 시세변동에 따라서 소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집행부의 신속한 사건처리가 무엇보다 단결과 믿음에 가장 큰 핵심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일 부화가 과열되어 병아리값이 하락되어 육계업자들이 생산과 잉의 우려가 높아지면 즉각 양측 분과위원회장을 소집, 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타협점을 모색도록 추진을 하고 결정된 사항은 즉시 회원에게 그날 통보를 원칙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부장도 3개 분과에서 윤번으로 맡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주관은 분과 위원장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매일 3개 분과에서 순번제로 1명은 반드시 지부사무실에서 업무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박재류 채란분과 위원장

#### 협회 지부사무실을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동물약품, 기계기구업체까지 연락을 하여 범경남 축산인 체육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분과위원장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것인데 유통문제에 대해 인상적인 몇마디를 종합해 본다면,

채란계의 경우 해당 연고지인 부산시가 소비지역이므로 항상 외지 반입 물량과의 가격경쟁해결이 어려움이다. 최근에는 계란가격 고시제도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잘 지켜지고 있는데 난가협의회가 있기 때문이다. 채란 단지장 중에서 5명이 선임이 되어 전국의 난가호름과 그때그때 부산시내의 물량을 파악하여 가격을 결정, 회원과 상인에게 통보를 하게 된다.

#### 상인들과 불협화음 없어

상인과의 마찰이 전국적인 현상인 것과 대조적으로 이곳은 전혀 생산자들과 상인간에 불협화음이 없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신용을 바탕으로 일관되어 왔기에 강력한 생산자 단체에 상인들이 믿고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난가조절위원회도 자기의 물량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성을 분석하여 정하기 때문에 전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난좌공장 전립 완성단계에

한가지 예로써 위생란 공급에 앞서 1회용 난좌사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거론된 난좌공장

#### 정성을 다하면 불신풍조 사라져

수많은 회원을 유효적절하게 관리하는 비법에 대해 질문하자 손지부장은 그 비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회원들의 애경사에는 전체 회원에게 연락을 하여 참석을 할 수 있게 협회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을 쏟으면 반드시 인간은 상대방의 어려운 일에도 외면을 하지 못하게 되며 이것이 단결하는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봄에는 분과별로 초청을 하여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성껏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협회를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져 불신풍조가 없어집니다. 가을철에는

건립이 금년 1월부터 착수에 들어가 현재 목표출자액 2억원 가운데 1억2천만원의 출자가 이루어져 공장부지 확보→건물 확보→동력선 설치→난작생산기계 설치단계를 거쳐 7월말에 설비가 모두 끝나고 8월에는 가동에 들어가 상품을 생산해 별 예정에 있다.

이때 모금한 출자액중 상인이 2천만원을 내놓았다는 것이 생산자와 상인간의 관계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박재류 채란분과위원장이 설명을 해 주었다.

“1회용 난좌 사용은 위생란 공급에 앞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구난좌로는 위생개념이 정착될 수 없고 각종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1회용 난좌를 사용함으로써 생산자들의 계란에 대한 청결의식을 높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의욕을 높여 소비증대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란출하시 난좌를 포함한 가격으로 유통이 될 것입니다. 물량면에서도 1일 부산시의 계란소비량이 300만개로 집계할 때 10만개의 난좌가 생산이 돼야 합니다.”

채란분과는 이밖에도 계절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물량이 체화될 때면 계란을 저온창고에 보관하기도 하지만 가격을 통해서 생산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것이 강력한 협회 운영방안이라고 한다.

#### 책임감 가지고 모두가 노력

육계분과의 활동도 생산자권익보



▲이종길 육계분과 위원장

상인과의 협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은 생산자들이  
스스로 양심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직원이 시세를 파악하여 회원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란 늘 100%가 잘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더 발전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곳만해도 도계장 인수문제를 놓고 고심하다가 최종단계에서 와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영세 사육업자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밖에도 경남지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시세속보 발간, 세무강좌, 세미나, 체육대회, 바둑대회를 열어 회원들이 만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손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업계의 현안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 각 도마다 지부 설치해야

“서울 본회를 구심점으로 양계업계는 뭉쳐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매번 총회때마다 전의를 하지만 충청도와 강원 그리고 경기 지역에 지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날 본회는 경기도지부가 없는 탓으로 지부가 해야 할 일까지 맡다보니 본회 고유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제대로 중앙회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축종별로 나누어 움직이던 축산업자가 이 한데 뭉쳐 생존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하는 이때 우리 양계협회는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생산자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의 안일하고 적극적인 사명의

호를 위해 자못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외지시세를 감안하여 상인과

협회측이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직접 협상에 임하는 이종길 육계분과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늘 생산이 과잉되어 불황이 오면 남의 탓만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합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경남지부의 예를 통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곳은 매일매일 전담

식이 없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 협회분열조짐은 분과별 운영이 부실한 데 원인커

즉 분과별로 활성화를 시키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큰 불화의 요인입니다. 지금 회원가입현황은 어떻습니까? 미미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단합이 됩니까? 협회하면 권위가 있어야 하고 권위가 있으려면 회원수가 적어도 절반이상은 참여를 해야 합니다. 회비를 대폭 낮추거나 아예 없애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또한 각 도단위에 지부를 설치하여 분회를 지부에 흡수시켜야 하고 본회 임원 및 집행부에서는 각종 행사에 반드시 책임자가 참여를 해서 유대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자체 경쟁을 통한 공존의식 발휘해야

그러면서 경남지부장의 견해는 누가 누굴 원망해야 할 시기는 지났다고 강조를 한다. 또한 정부의 보호만을 의존해야 할 시점도 아니라고 한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공존해야 하는 지혜만이 살길이라는 것이다.

채란계의 경우도 사료값 인상, 날로 심각해지는 고용문제로 불가피하게 단위당마전을 높이기 위해 사육규모의 증가와 기계화설치 등의 합수관계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 양계산업 전환기에 홍보사업 재조명 필요

1차산업의 특성상 물량이 5%만 증감해도 폭등과 폭락을 반복해야 하는 현실에서 홍보사업의 전개방식도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즉 홍보사업에 투자한 돈이 업계내로 되돌아오지 않는 사업보다는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산물소비를 겸한 홍보를 통하여 싸고 저렴하다는 호소보다는 건강에 좋고 훌륭한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강력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

고 하였다.

끝으로 양계관련 산업이 좀더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일전에 일간신문을 통해 대대적인 광고를 계재한 업체에 감사를 표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보답을 해야 한다는 원리대로 곧 대책 회의를 열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 회생자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어려울 때 돋자는 것이 부산·경남지부의 운영 방안이다. 양계

### ■지부임원구성표

#### ●지부장 : 손종현

#### ●채란분과 위원장 : 박재류

#### ●채란분과 부위원장 : 이용익

#### ●채란분과 단지장

오경 : 김국경 언양 : 홍순학 밀양 : 박재류 두구 : 우원현  
정관 : 전주한 김해 : 박상근 사동 : 정영규 함안 : 이길수  
마산 : 박상훈 대림 : 김영철 행운 : 김윤득 대주 : 이창희  
용호 : 조합장 덕촌 : 조합장 대동 : 조합장 경주 : 조합장  
울산 : 조합장 상동 : 조합장 초곡 : 조합장 구령 : 조합장  
부화분과위원장 : 최태환, 부화분과부위원장 : 조용은

#### ●육계분과 위원장 : 이종길

#### 부위원장 : 이상정, 임정철

#### ●육계분과 분회

김해분회 : 전영철 덕계분회 : 박창규 진영분회 : 이정도  
양산분회 : 임정철 밀양분회 : 석기상 동부분회 : 김성준  
거제분회 : 주춘오 마산분회 : 이동수 울산분회 : 이태주  
고성분회 : 김홍기 용촌분회 : 김진경

#### ●부산·경남지부 이사단

김중경, 우원현, 홍순학, 이용익, 이용덕, 박상훈, 유효조  
합장, 덕촌조합장, 경주조합장, 주양수, 김선조, 김영진,  
강명중, 김성봉, 이환생, 김성준, 정칠문, 김진경, 조주  
현, 강종순, 홍창식, 박만록, 박태준

#### ●감사 : 정영규, 하영석

#### ●간사 : 안병호